2026년 11월 24일

Hana FX Daily Letter

AI 투자심리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위험선호 심리와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 영향 속 하락
daily range 예상: 1,335~1,345원

▪ 주요 AI 기업 관련 호재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되었음. 이에 따른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등도 고려하면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AI 산업의 미국 성장 견인 기대와 함께 연준 긴축 가능성이 재차 부각됨. 이에 달러가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하단 지지할 요인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최근 오름폭을 되돌리며 1,330원대로 하락을 시도할 전망

▪ **전일 동향 : 21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3.4원 내린 1,342.6원 마감**
장 초반,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인한 위험회피 분위기 속에 1,34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 이후 외인 증시 매도세에 1,350원대 초반까지 고점 높였으나, 수출업체 네고물량에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며 1,345.9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미 기술주 급등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으로 1,340원대 초반으로 하락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급등하자 달러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까지 강화되면서 달러인덱스는 104선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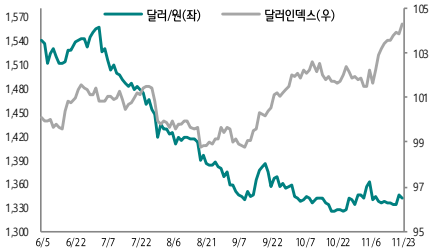
▪ **(유로-달러)** 유로존 PMI가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으나, 프랑스는 위축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글로벌 증시 회복 기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된 데다,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 미-일 금리차 우려도 강화되자 엔화는 약세로 전환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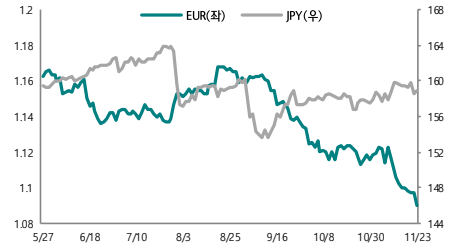
▪ 간밤 미국 기술주가 큰 폭 반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속되던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앞서 AI 산업의 성장성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술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연준의 통화정책 경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됨. 이러한 흐름은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0월 약 26조원에 이어 11월 들어 약 14조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 중. 이와 같은 외인 증시 자금 이탈은 외환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외국인의 주식 매도 대금 환전 및 역송금 과정에서 달러 환전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글로벌 위험회피 국면에서 원화와 같은 위험통화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기 때문. 이와 같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최근 달러/원 환율은 1,350원선을 상회했음. 향후에도 AI 산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고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다만, 국내 수출 여건이 견조하다는 점에서 1,350원대에서는 수급 영향이 반영되며 추가 상승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45.0	1,351.6	1,338.2	1,339.9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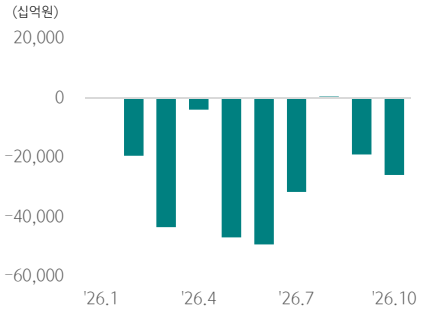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0902	158.98	6.6666
전일대비	-0.0066	+0.43	-0.0080
재정환율	1,463.88	844.62	201.40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8:00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	90.5	90.2
22:15	미국 11월 ADP 고용 증감		-23.75k
00:00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92.2	91.7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